

세계 패션선도 도시들의 남성 스트리트 패션 연구 -유형분류와 스타일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 찬 주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Men's Street Fashion in World Fashion-Leading Cities : Classification and Style Analysis

Chanju Kim

Dept. Fashion &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2001. 10. 30. 접수)

Abstract

This paper was done to identify the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fashion of men living in world fashion-leading cities. 608 male photos taken on the main streets of 4 world fashion-leading cities such as London, New York, Paris, Tokyo were used as data. Photos were viewed by students and classified according to overall images and the common aspects of characteristic style. Fashion images of male were classified into 11 groups, which were suits, casual, hip-hop, rockers/punks, hippies, ethnic, western, military, new romantic, skirt, androgynous. Frequency distribution showed that casual image was mostly preferred and followed by suit, rocker/punks. Military and hippies were least favored. In each category, almost every style looked unique and creative as a result of mixing and cross-coordination of different clothing items.

Key words: Street fashion, male fashion preference, classification; 스트리트 패션, 남성 패션기호, 유형 분류

I. 서 론

현대 사회 대도시의 거리(Street)는 단순히 공간상의 거리가 아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치관, 취향, 기호들을 표현하는, 이른바 문화창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거리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역인 현대의 청소년들은 'treasure hunter'라고 불릴 정도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수집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유행경향을 창조해내고 있다. 이들의 독창적인 발상을 통해 연출된 의

복스타일은 곧 그들의 가치관과 기호를 표현하며 나아가 그들이 수용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상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이 표현하는 독특한 스타일과 착장 방식은 기존의 하이패션 디자이너들과 대중적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작업에 자극제로서 작용하여 새로운 유행경향으로 재창조되고 결국 사회 전체에 확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외 패션 산업체에서는 세계적 패션중심도시의 스트리트 패션들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여 이들을 패션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패션은 시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며,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스트리트 패션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본 논문은 2001년도 인천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 되었음.

과거의 스트리트 스타일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의 스트리트 패션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고 더욱이 여러 나라를 함께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리트 패션이 갖는 의미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여러 나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의 스트리트 패션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스트리트 패션이 주로 전개되고 있는 대도시들, 그 중에서도 문화창조의 중심이자 세계의 패션을 리드해간다고 인식되고 있는 4개 패션선도 도시들, 즉 파리, 런던, 뉴욕, 동경의 거리에서 발견되는 스트리트 패션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고 각 유형별로 스타일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방대하여 남성들의 패션을 먼저 분석하였으며, 패션선도도시들의 스트리트 패션 분석을 통해 현대 대도시 남성들의 패션기호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리트 패션의 역사

스트리트 패션은 20세기에 들어와 도시가 급격히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20세기 초반 도시에서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상점들과 레스토랑들이 나열되고 이로 인해 주요거리들이 형성되었다. 거리의 형성은 문화의 중심지가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지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과정은 계층간에 경제적 불균형을 야기시켰고, 그 결과 경제적·사회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하층 노동계급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빈곤과 함께 사회·문화적으로도 소외되어 갔다. 이들 젊은이들에게 거리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목적지이자 종착지였다. 그들은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거리의 특정 장소에 모여들어 행동을 함께 하는 가운데 집단적 유대감을 굳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갔다(Polhemus, 1996; 6). 이러한 집단적 유대감이 시간적, 지리적 영역을 넓히며 공동된 사고방식이나 행동패턴을 개발해나가게 되고 이로서 하위문화가 형성되었다. 하위문화에 속한다는 것은 곧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Haye & Dingwall, 1996; 3).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구성원사이에는 일체감을, 다른 집단들과는 구별감을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을 필요로 하였는데, 의복, 음악, 언어, 의식(ritual)이 대표적으로 이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의복과 음악은 가시도가 크고 접근이 비교적 쉬워 대중들에게는 주로 의복과 음악으로서 특정 하위문화가 인식되어 왔다.(Clarke, Hall, Jefferson, & Roberts, 1997; 110). 이처럼 하위문화 집단들이 이제까지의 문화적 집단의 의미가 인종이나 혈연, 계층, 직업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변수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독특한 형태의 머리모양, 의복, 장신구와 같은 외모스타일을 이용하여 다른 집단들과 구별한다는 점에서 Polhemus는 이들을 스타일족(style tribes)으로 불렀다(Polhemus, 1996; 14). 20세기에 나타난 하위문화와 스타일족은 같은 집단을 가르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자 하며, 다만 문화로서의 의미가 강할 때에는 하위문화라는 용어를, 그리고 스타일의 의미가 강할 때에는 스타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스트리트 스타일은 이들 스타일족들이 만들어내는 외모와 언행을 종합하여 일컫는 용어이며(Haye & Dingwell, 1996; 4) 스트리트 패션은 스트리트 스타일이 일반 대중에 의해 모방되어 패션화가 된 상태를 가리킨다. 스트리트 스타일의 역사는 194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시기와 1990년대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940년대 초 미국에서 소외된 계층이던 흑인 청년들 사이에 유행한 험령한 스타일의 정장풍을 일컫는 Zooties를 선두로 등장하기 시작한 스타일족들은 1980년대 말 과학기술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던 Techno에 이르기까지 많은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다. 스타일족들은 도심재개발과 같은 산업화과정의 여파로 사회집단 사이의 불평등과 분단이 심하게 남아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곧 서구의 다른 나라로 파급되어 갔다(정현숙, 양숙희, 1999).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든다면 1940년대에는 Zooties, Western, 1950년대에는 Teddy Boys, Rockabilies, Surfers, 1960년대에는 Mods, Rockers, Skinheads, Psychedelics, Hippies, 1970년대에는 Glam, Rastafarians, Skaters, Punks, 1980년대에는 Casuals, New Romantics, New Age Travelers, Ravers, Pervs, Technos 등이 있다. 여러 선

행연구들이 각 그룹의 발생배경과 스타일 특징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한바 있다(Cohen, 1997; Hebdige, 1977, 1979; Clarke, 1977; Powel & Peel, 1994; Polhemus, 1995, 1996; Haye & Digwall, 1996; 김민자, 1987; 정현숙, 양숙희, 1999; 간문자, 1999; 염혜정 1999, 2000; 정미진, 정홍숙, 김선화, 2002)

이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스타일족들은 공통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성행했고, 시대의 사회적 환경변화가 가져오는 세대간의 갈등과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도전과 실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주도해왔고, 시간적 순서를 두고 다른 스타일로 변화하거나 영향을 미쳤다.

스트리트 스타일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소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먼저 각 스타일족들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점이다. Ravers, Technos, Acid Jazz 등 여러 스타일족들이 신념과 태도, 음악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각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던 스트리트 스타일의 구별적 특성이 완화되고, 대신 여러 스타일들이 섞이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Hays & Dingwall 1996; 6). Polhemus는 이처럼 여러 스타일족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The gathering of tribes'라고 표현하였고, 여러 스타일족들의 의상들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서로 섞여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되는 것을 슈퍼마켓에 비유해 'Supermarket of style'이라 표현하였다(Polhemus 1995; 130, 정현숙, 양숙희 1999; 159-160). 그러나 Teddy Boys, Skinheads, Hippies와 같이 아직도 자신들의 스타일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스타일족들도 있다(Hays & Dingwall 1996; 6). 1990년대 이후의 스트리트 스타일에 나타난 두번째 변화는 하이패션과의 경계가 얇아지고 스트리트 스타일이 패션화된 점이다. Gaultier, Versace, Hamnett, Richmond를 비롯한 일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은 과거에 성행했던 스타일족들의 특징적인 스타일들을 채택, 시대감각에 맞도록 수정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발표하였고 그 결과 스트리트 스타일의 패션화를 선도하였다(Polhemus 1995, 12-16). 이와 같이 현재의 스트리트 스타일은 과거의 스타일족들이 스타일을 자신들 집단의 정체성 유지와 구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과 달리 개인의 정체성 표현이 더욱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들을 혼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들을 연출하는 것이 현재의 스트리트 스타일 모습이다.

2. 스트리트 패션의 변성배경

스타일족들이 번성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 가장 일차적인 동기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 중심의 도시빈곤계층에 대한 정책부재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증가, 전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데서 찾을 수 있다(Clarke et al, 1997; 100). 그러나 스타일족들의 번성은 무엇보다 음악과 미디어의 힘이 컸다(Hebdige, 1987; Gregory, 1998; Haye & Dingwall, 1996; 정미진, 정홍숙, 김선화, 2002). 음악은 특정 하위문화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Zooties, Western, Rockers, Psychedelic, Hippies, Punk 등 많은 하위문화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음악세계를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특정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념과 생활방식을 추종하고 같은 스타일의 의복을 입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 문화의 구성원이 되어 갔다. 특히 각 하위문화들은 콘서트와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구성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자신들의 음악세계를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구성원들 연합의 구심점이 되었다. 미디어는 새로운 흥미 거리를 찾는 대중을 위해 새로운 문화로서 이들 하위문화들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음악, 스타일, 축제들을 정기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데 일조 하였다. 미디어로 인해 하위문화가 특정 지역의 제한을 벗어나 다른 지역과 나라로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4 TV는 'Tribal Time'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거대한 연속물을 만들어 세계 각지의 스타일족들의 활동과 스타일들을 소개하였다(Polhemus, 1996; 48)

Sexuality의 변화와 클럽문화의 활성화 역시 스타일족들의 번성과 스타일 방향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들이다.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그들 나름의 하위문화를 형성함에 따라, 패션에서는 여러 가지 '금기사항'(예를 들어 남자의 화장과 여장차림)들이 깨어졌고 근무복에서 속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영향이 미쳤다. 1970년대 중반부터 런던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클럽문화는 곧 뉴욕, 파리, 샌프란시스코 등 서양의 여러 대도시를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사교와 패션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들 클럽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파티를 벌여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는 도시의 젊은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클럽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이 없었다. 과거에서 현대,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양에서 서양을 넘나들며 개인의 무한한 상상력과 독창성을 옷차림을 통해 발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온라인화 되면서 더욱 그 지경을 넓혀 가고 있다(Mort 1988; 217-219; Polhemus 1996; 83-91).

소규모이긴 하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파는 의류소매상들과 중고의류를 파는 소매상들의 존재 또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스트리트족들에게 스타일의 공급원으로서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1980년부터 영국에서 발간되기 시작한 'Face', 'iD'와 같은 스타일잡지와 Chalayan, Red or Dead를 비롯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을 가진 디자이너들의 존재도 스트리트 스타일의 변성에 기여도가 컸다(Haye & Dingwall, 1996, 2-7). 스트리트 스타일들이 특히 영국에서 활발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처럼 대중에게 스트리트 스타일들을 소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마케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Polhemus는 '개인들의 정체감 약화'와 '문화적 전도' 현상이 스타일족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모더니즘의 성공 이후 날로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와 사회적, 지역적 이동, 중산층의 확대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들은 전통적 문화적 틀안에서의 소속감이 없어져 개인적인 정체감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정체감의 공백을 메워줄 대상(예를 들어 의상이나 가구)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감과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는 동질의식을 함께 느끼기도 한다. 스타일족이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 호응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정체감이 불안정하여 스타일로 소속감을 느끼기 원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950년대에 일부 음악인들이 노동자계층과 흑인 재즈음악가들의 옷차림을 도방하여 청바지와 셔츠, 일상적인 양복차림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상류사회 옷차림 모방을 추구하였던 'dressing-up' 현상이 'dressing-down' 현상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문화적 혁명, 즉 사회적 질서체계의 전도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현실적인 차림을 통해 이상보다 현실을, 그리고 진짜(authenticity)의 의미가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Polhemus, 1996; 43-6).

3. 현재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분류

과거의 스트리트 스타일 유형에 대하여는 많은 선행연구가 시행되었으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극소수이다. 엄혜정(1999)은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스트리트 패션은 하나의 특징적인 스타일로 구별되던 그전 시대와 달리 여러 스타일의 복합된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유형분류가 어려우나, 이들은 대체로 중고품을 중심으로 리사이클(recycle) 감각과 다양한 스타일의 복고를 의미하는 리바이벌(revival)감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 남성들의 거리 패션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들의 패션은 T.P.O에 따라 Business life, Social Life, Urban Life, Weekend Life 4종류로 나뉘어졌다. 이들 4가지 Life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스타일 유형은 크게 Formal과 Casual로 나뉘어지고 Formal은 다시 Modern chic, Classic, Semi Formal의 3 유형으로, Casual은 Traditional과 Natural Casual의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졌다. 다만 Urban Life 에서는 이들 외에 몸에 달라붙는 스타일인 Fitted와 험령한 스타일인 Hip-Hop 스타일이 추가되었다(한국패션협회, 2000)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자료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분석으로 나뉜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스트리트패션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대도시들로서 세계적 패션중심도시인 런던, 뉴욕, 파리, 동경을 선정하였다. 이들 도시들의 중심거리와 문화공간에서의 스트리트 패션을 전문적으로 촬영하여 월간으로 소개하는 패션전문지 'STREET'과 종합적인 패션정보와 함께 거리패션을 소개하는 계간 패션정보지 'TEXTILE VIEW'를 자료원으로 이용하였다. 시기는 패션 정보지에 거리패션이 패션정보로 소개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에서 최근까지로 하였고, 사용된 자료원들의 발간시기는 1996년 1월-2000년 8월까지였다. 주로 정면으로 향한 남성 사진들을 채택하였으며 옷과 머리모양, 장신구의 모양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만 자료로 이용한 결과 총 608점이었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특성과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축소와 전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한 Denzin과 Lincoln의 제안(Denzin &

Lincoln, 1998; 179-185)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먼저 유형화하여 축소하고 이 유형별로 자료를 전시한 다음 특징과 의미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인 유형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1) 수집된 자료들을 게스탈트(Gestalt)이론에 입각하여 전체적인 이미지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타일이나 착장 방식의 공통된 특성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유형화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류학 전공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같은 자료를 주고 각각 유형화를 의뢰하였다.

2) 각 유형에 속한 내용들을 통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할 것을 의뢰하였다. 1)과 2)의 결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양 쪽이 거의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명칭 부여와 자료전시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 2개의 유형(Androgynous, New Romantic)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살펴본 다음 문헌을 참고하며 최종으로 연구자가 유형분류와 명칭을 확정하였다.

3) 각 유형에 속한 스타일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이 때 분석의 기준은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 무늬 등 디자인 요소의 측면에서 행하며 이와 함께 각 유형별 스타일들의 공통성과 다양성의 차원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부가적 관심사항으로 유형별로 착용자 연령과 지역별 차이도 살펴보았다.

IV. 결과분석

1. 남성 스트리트 패션의 유형과 특징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의 공통점에 의해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현대 남성들의 스트리트 패션은 크게 11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괄호안의 숫자는 출현빈도이다. 각 유형별로 디자인 요소별로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캐주얼(casual)(319)

캐주얼 스타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가장 기본 아이템인 바지와 티셔츠, 혹은 셔츠 차림으로 시작해서 그 위에 베스트(vest)나, 스웨터, 가죽점퍼, 트레이닝점퍼, 혹은 길이가 긴 코트를 걸치기도 하였고 더우면 점퍼나 스웨터를 벗어 허리에 두르기도 하였다. 하의는 청바지가 가장 많고, 가죽이나 광택나는 천으로 만든 바지도 많았다. 여름에는 무릎 길이의

팬츠도 다수가 입었으며 신발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운동화를 많이 신었다. 캐주얼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은 상의와 하의 모두 몸에 잘 맞아 전체적으로 신체선을 드러내고 날씬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것과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다양하게 코디네이션한다는 점, 그리고 색상과 무늬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스타일에 비해 착용하는 연령대의 분포가 가장 넓었다. 이들은 착용아이템의 특징에 따라 다시 9개 그룹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Fig. 1, 2, 3, 4>.

A. 가죽(Leather) (42)

가죽으로 만든 점퍼나 바지가 공통요소이다<그룹 1>. 가죽 대신 광택나는 합성피혁과 비닐이 사용되기도 했다. 가죽으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같이 입기도 하고, 따로 입기도 했다. 가죽점퍼를 입을 때는 하의로는 청바지나 바지 옆선에 아디다스 줄무늬가 있는 트레이닝 팬츠를 많이 입었다. 그리고 가죽점퍼의 모양은 전통적인 블레이저형과 플랫칼라나 스탠딩칼라의 길이가 짧은 점퍼형 외에도 품이 넉넉한 반코트형, 몸에 밀착되는 형태 등 길이와 모양에 있어 매우 다양하며 부분적으로 누빈 디자인들도 있었다. 가죽의 색상은 검은색, 갈색, 푸른색, 붉은색, 초록색 등 다채로운 색상들이 사용되었고, 특히 선명한 빨강색의 가죽 상의나 바지가 다수 눈에 띄었다.



Fig. 1. Casual Look(Leather jumper & Pants), Street in Paris, No.127 2000.2

Fig. 2. Casual Look(Casual jumper & Pants), Street in New York, No. 97 1997. 8

B. 캐주얼 점퍼(Casual Jumper) (58)

공통적 특징은 몸에 적당히 맞고 편안해 보이는 캐주얼 점퍼를 티셔츠나 스웨터위에 착용한 것이다<그림 2>. 점퍼의 재질은 주로 신축성이 좋은 면니트 조직이 많고, 스타일은 플랫칼라, 허리까지 오는 길이에 앞지퍼가 달린 단순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후드가 달린 디자인들도 많았다. 다양한 형태의 셔츠, 티셔츠, 스웨터, 바지와 함께 코디네이션해서 입었다. 특징할 점은 아디다스 줄무늬로 알려진 줄 3개가 소매나 앞가슴 또는 바지 양 옆에 붙어있는 스타일의 점퍼나 바지를 입은 예가 많다는 점이다. 색상은 빨강, 주황, 노랑, 파랑과 같은 원색에서부터 흰색, 회색, 검은색의 무채색까지 매우 다양하다.

C. 랩어라운드(Wrap-around) (14)

티셔츠나 셔츠, 바지를 입고 허리에 스웨터나 점퍼를 둘러 묶은 스타일이다. 날씨 변화가 심한 런던과 파리에서 주로 발견되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전달한다.

D. 코트(Coat) (33)

코트가 공통요소이다. 동절기에 많이 보이는 차림으로 스웨터와 바지, 또는 정장 위에 코트를 입었다. 재질은 비닐, 가죽, 테넬, 모직, 코듀로이, 털 등 다양하다. 코트의 길이는 대퇴부 중간부터 발목길이까지 다양하며, 형태 또한 후드 달린 것에서부터 트렌치 코트 스타일, 테일러드 칼라의 스트레이트 스타일, 칼라나 앞중심선에 털을 트리밍한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코트의 색상은 검은색과 회색이 많으나 붉은색, 자주색, 겨자색 등 색상이 들어간 것도 있고,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것도 있었다. 실루엣은 몸에 잘 맞는 것과 넉넉한 직선형 실루엣들이 함께 존재했다. 착용자의 연령층이 20대보다 30대, 40대 또는 그 이후가 많아 코트 차림은 중·장년층이 선호함을 알 수 있다.

E. 베스트(Vest) (19)

셔츠나 스웨터 위에 다양한 스타일의 베스트를 입은 모습이다. 베스트는 캐주얼한 느낌의 데님(denim)에서 니트, 털을 트리밍한 것, 패딩, 술(fringe)을 단 것, 패치워크 한 것 등 여러 종류의 스타일을 가졌다. 색상은 원색에서 무채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주로 계절이 바뀌는 3월, 4월, 9월, 10월에 많이 보인다.

F. 스웨터(Sweater) (22)

스웨터와 바지 차림이다. 스웨터는 줄무늬, 기하학적 무늬, 전통적인 아라가일 무늬, 손으로 짠 것 등

다양하며, 니트 모자와 함께 착용한 경우가 많다. 색상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나, 몸에 잘 맞는 실루엣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G. 셔츠(Shirt) (40)

스트리트패션에서 보이는 셔츠는 서양 남자 복장의 기본아이템인 기존의 버튼다운 스타일인 것은 변함이 없으나, 좀 더 몸에 잘 맞고,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3>. 특히 젊은 남성들은 여자들의 셔츠와 같이 몸에 매우 밀착되고 배꼽이 보이는 짧은 길이의 크롭(crop) 스타일의 셔츠를 입은 모습도 종종 보였다. 주로 춘하절기에 입으며 바지 위로 내어 입었으며 목에서 스카프나 타이로 장식한 경우도 있다. 색상이 화려하고, 꽃무늬, 기하학적 무늬, 그래픽 무늬 등 무늬를 많이 사용했으며, 티셔츠 위에 입기도 하였다. 거의 대다수가 목걸이를 하였다. 하의로는 역시 청바지가 가장 많으며 폭이 좁은 일자형 바지와 함께 무릎 길이의 통넓은 바지들도 많이 입었다. 옆에 흰 줄이 있는 트레이닝 팬츠를 입기도 했다. 신발은 운동화가 가장 많고, 샌들도 많이 신었다.

H. 티셔츠(T-shirt) (81)

단일 룩으로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스타일이다. 바지 위에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티셔츠만 입은 것으로 셔츠 룩과 함께 하절기의 일반적 차림이라 할 수 있다<그림 4>. 티셔츠의 형태는 목이 드러나는 둥근 목 둘레선의 단순한 스타일이 거의 대부분으로 칼라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티셔츠도 셔츠와 같이 전체적으로 색상이 무척 다채롭고 무늬가 화려하며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잘 맞는 스타일이 대부분이다. 소매가 없거나 길이가 매우 짧은 크롭 스타일도 많이 입었다. 티셔츠 위에 티셔츠를 입기도 하고 망(net) 조직의 티셔츠를 위에 입어 안이 들여다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무릎 위나 무릎 길이의 짧은 바지나 군복, 청바지, 트레이닝 바지들과 함께 입었다. 티셔츠는 흰색, 검은색의 무채색과 함께,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의 원색들이 함께 사용되었고 꽃, 세로줄, 국기, 그래픽 무늬들도 있었고 문자를 찍거나 수 놓은 티셔츠들도 다수 있었다. 신발은 주로 운동화를 신었다.

I. 방한복 (8)

겨울철에 한해 발견되는 차림으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패딩된 점퍼나 코트를 입었다. 단순한 디자인에 형광색을 비롯한 선명한 색상들을 주로 사용하고 기하학적 구도의 색 배합을 한 것도 있었다.



Fig. 3. Casual Look(Shirts & Pants), Street in Paris, No. 102 1998. 1



Fig. 4. Casual Look(T-Shirts & Pants), Street in New York, No. 125 1999. 12



Fig. 5. Suits Look(Business Suits), Street in London, No. 122 1999. 9

2) 정장(suits) (98)

재킷이 공통요소이며, 자과 셔츠, 바지로 이루어지는 스타일이다. 이들은 다시 재킷의 색상과 질감이 바지와 같은지, 그리고 안에 입은 의복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따라 포멀(formal)한 이미지의 비즈니스 정장과 캐주얼한 이미지의 캐주얼 정장으로 나누어진다.

A. 비즈니스 정장(Business suits) (34)

테일러드 칼라, 단추 2개 혹은 3개의 클래식한 느낌의 재킷과 같은 소재의 바지, 재킷안에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이다<그림 5>. 색상은 갈색이 가장 많고 검은색과 회색, 베이지색상도 있어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안에 셔츠는 분홍, 노랑, 파랑과 같은 밝은 색이 많았다. 재킷과 바지의 실루엣이 몸에 잘 맞아 전체적으로 매우 날씬해보인다. 테일러드 칼라의 재킷 외에도 밴드 칼라의 네루스타일 정장이나 길이가 무릎위까지 오는 긴 재킷들도 있었다. 착용자 대다수가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다.

B. 캐주얼정장(61)

비즈니스 정장과 달리 재킷의 색상이나 질감이 바지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가 많으나 단추는 3개 또는 그 이상이 주를 이룬다. 재킷은 비즈니스정장에 비해 훨씬 색상이 다양하고 화려하다<그림 6>. 검은색 위주의 어두운 색과 붉은색, 파란색, 흰색 등 선명한 색상이 거의 같은 비율로 발견된다. 재킷에 세로줄, 점, 꽃, 동물표피, 과자 등

다양한 무늬들이 사용되기도 했다. 안에 주로 화려한 그래픽 무늬의 셔츠나 글자 있는 티셔츠를 함께 입어 전체적으로 경쾌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리고 바지는 청바지나 가죽 바지가 많고, 때로는 체크무늬나 줄무늬, 또는 광택 나는 천으로 만든 바지도 있었다. 착용자들은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층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비즈니스 정장 차림은 클래식한 구두가 주를 이루었으나 캐주얼정장에서는 운동화, 부츠, 구두를 골고루 신었다.

3) 록커/핑크(Rockers/ Punks) (53)

이 그룹은 장식이 많은 검은색 가죽점퍼와 바지, 굵은 벨트, 목이 높은 부츠, 그리고 짧게 깎거나 가운데 머리를 세운 특이한 헤어 스타일로 특징지어진다<그림 7>. 먼저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점퍼에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자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많은 금속장식(stud)들을 붙여 독특한 디자인을 연출했다. 그리고 목, 어깨, 허리 등에 여러줄의 체인을 걸기도 하였다. 점퍼 안에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사람얼굴, 해골 그림이나 사탄의 모습 등 기괴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 프린트되기도 하였다. 바지는 청바지나 가죽바지를 주로 입었고 목이 높고 끈으로 묶는 부츠를 신었다. 머리는 양 끝은 다 깎고 가운데 머리만 남겨 염색을 한 스타일이 가장 많고 머리를 나누어 높이 세워 올린 모히칸(mohi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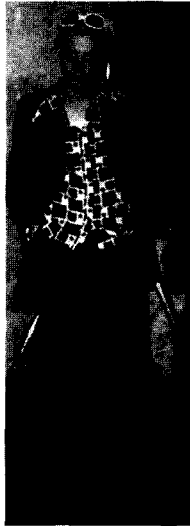


Fig. 6. Suits Look(Casual Suits),
Street in Paris, No. 90
1997. 1



Fig. 7. Rockers / Punks Look,
Street in London, No. 115
1999. 2



Fig. 8. Ethnic Look, Street in
Paris, No. 108 1998. 7

헤어스타일도 있었다. 이러한 스타일 특징은 1960년대 Rock 음악을 숭배하던 젊은이들이 주로 입었던 'Rockers'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성행한 파괴적 성향의 'Punks' 스타일이 혼합된 양상이다. 즉 검은색의 가죽에 금속장식을 많이 사용하고 등에는 사탄의 모습을 그린 재킷을 많이 입었던 Rockers들의 스타일과 체인,판을 이용하여 장식하고 머리세우기와 염색 등 특징적인 헤어스타일과 문자 메시지들을 강조하였던 Punks들의 스타일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리고 코, 입, 눈썹 등을 뚫어 작은 크리를 달거나 팔 전체에 걸쳐 문신을 한 모습도 많았다.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 하나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다. 파리, 뉴욕, 런던에서 골고루 발견되나 특히 런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4) 에스닉(Ethnic) (34)

에스닉 스타일은 각 민족 또한 문화권의 문화적 전통이 표현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스트리트패션에는 다양한 에스닉 스타일이 보이는데 공통적인 요소는 자수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그 문화의 상징적인 문양을 수놓거나, 프린트 하는 것이다. 동물이나 식물을 형상화한 무늬에서부터 줄무늬, 체크무늬 등 매우 다양하며 기호에 따라 여러 스타일들을 혼합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그 지방이나 민족의 고유한 복장을 그대로 입고 다니기도 한다<그림 8>. 특히

197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 외국인들의 이민이 급증하면서 에스닉 스타일을 입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가시적 영향력도 커졌다. 1990년대 에스닉이 패션의 테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면서 특정 문화권의 상징적 표현들이 의복에 응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것을 스트리트 패션에서 잘 볼 수 있다. 아프리카 풍 장신구와 문양, 용무늬, 튜닉드레스, 카프탄 스타일의 셔츠, 할렘풍 바지들이 그 예이다.

5) 힙합(Hip-Hop) (31)

힙합스타일은 몸에 잘 맞는 실루엣의 정장이나 캐주얼 스타일과 달리 품이 넉넉하여 헐렁해 보이는 실루엣이 특징이다<그림 9>. 길고 매우 통이 넓은 바지와 이와 유사한 스타일의 상의를 입는다. 'Baggies'라고 불리는 이 헐렁한 바지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Skaters'라고 불리우던, 도시 거리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몸에 구속을 주지 않는 자유로운 복장을 필요로 하여 입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활동적인 청소년들의 거리패션으로 정착하였다. 여름에는 무릎정도나 무릎아래 길이의 헐렁한 바지를 입었다. 소재는 데님을 비롯한 면이 주를 이루고 비닐을 포함한 광택나는 합성섬유들도 사용되었다. 바지 옆선에 줄이 들어간 디자인들도 있었다. 상의는 계절에 따라 티셔츠, 스웨터, 트레이닝 점퍼, 앞이 막힌 헐렁한 점퍼를 입었다. 젊은 층



Fig. 9. Hip-hop Look, Street in New York, No. 115 1999. 2



Fig. 10. Western Look, Street in New York, No. 116 1999. 3



Fig. 11. Skirt Look, Street in Paris, No. 95 1997. 6

이 주로 입으나 장년층이 입은 모습도 꽤 보인다. 색상은 다른 스타일에 비해 흰색이 많지 않고 주로 검은색, 푸른색, 회색 등 전체적으로 어둡거나 가라앉은 색조가 많았다.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주로 착용하는 만큼 활동적이면서 동시에 기능성도 강조되어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포켓들이 바지에 붙어 있다.

6) 웨스턴(Western) (24)

미국 서부개척 시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스타일로 데님으로 만든 재킷과 바지, 가죽 부츠, 카우보이 모자가 주요 아이템이다<그림 10>. 데님 외에 골덴이나 가죽 등 다른 소재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의 웨스턴 스타일은 사람마다 거의 비슷한 형태를 착용하였으나 현대의 웨스턴 스타일은 웨스턴 이미지라 하더라도 일관된 복장은 아니고 개인의 개성에 따라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거나 조합을 달리하였다. 소매없는 티셔츠나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써 웨스턴 이미지를 풍기려한 시도들이 이에 해당한다. 웨스턴 스타일은 1940년대에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어 잃어져가는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에서 입기 시작했고, 웨스턴스타일 영화의 성행에 힘입어 스트리트 스타일화 되었다. 웨스턴 스타일을 입은 착용자의 연령층이 다양한 것과 지역별로 골고루 착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에도 웨스턴 스타

일은 전원생활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하나의 패션이 미지로서 여전히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스커트(Skirt) (21)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 공통적이다. 스커트의 형태와 소재는 매우 다양하다. 길이가 무릎 위 짧은 것부터 발목길이의 긴 것도 있고, 둘러입는 랩(wrap) 형태, 킬트(kilt), 주름 잡은 것, 드레스 형태, 니트스커트 등 여러 가지이다. 특히 체크 무늬의 랩 스커트가 가장 많았고, 바지와 한 벌로 착용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보통 티셔츠나 스웨터와 같이 입고, 재킷이나 점퍼와 함께 입기도 하였다<그림 11>. 색상 또한 무채색에서 흰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신발은 샌들이나 운동화, 부츠를 주로 신었다. 스커트를 입었으나 머리가 짧고, 화장도 하지 않아 여자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착용하는 연령대도 다양하며, 런던과 파리에서 주로 볼 수 있었다.

8)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9)

눈을 강조한 짙은 화장과 여성스러운 머리스타일, 신체노출이 이 그룹의 특징이다<그림 12>. 물론 귀걸이·목걸이 등 장신구도 행하며 하이힐 구두를 신고 때로 베일을 쓰기도 했다. 소재는 벨벳, 털, 광택나는 실크 등 다양했고, 빨강이나 분홍색처럼 화려한 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얼른 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의



Fig. 12. Androgynous Look, Street in Paris, No. 88 1996. 11



Fig. 13. New romantic Look, Street in London, No. 99 1997. 10

구별이 안 될 정도이다. 이처럼 성의 구별이 모호한 스타일은 1970년대에 가수 Bowie와 Bolan이 양성(androgyny)을 표방하며 시작하였던 ‘Glam’스타일이 원조이나, 현대의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은 ‘Glam’과는 달리 번쩍이는 소재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여성미를 살리려 했다. 동성애자들에 의해 주로 착용된다.

9) 뉴 로맨틱(New Romantic) (9)

과거시대의 의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스타일을 의미한다. 멀리는 고딕, 가까이는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특징적 의복스타일을 그대로 연출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어 현대화시킨 것들도 있다. 특히 바로크나 로코코풍의 길이가 길고 수가 놓여진 재킷과 부풀린 소매의 셔츠가 주 아이템이다 <그림 13>.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그 시대의 가발이나 장신구 등을 함께 행하였다. 1980년대 파괴적인 Punk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거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귀족적인 옷차림이 성행하였는데 이를 New Romantics라 하였다. 뉴 로맨틱스타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런던과 뉴욕의 클럽문화에 기인한다.

10) 밀리터리(Military Uniform) (9)

밀리터리를 주제로 해군, 공군, 육군의 군복과 중



Fig. 14. Military Look, Street in London, No. 117 1999. 4



Fig. 15. Hippies Look, Street in London, No. 127 2000. 2

동지역의 군복차림이 있고 기마병, 그리고 경찰관의 복장도 있었다. 주제에 맞추어 모자와 부츠를 함께 착용했다<그림 14>.

11) 히피(Hippies) (5)

히피는 1960대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전역의 젊은이들 사이에 성행하였던 자연주의지향의 평화주의자들을 일컫는다. 히피들의 의복스타일 특징은 길게 늘어뜨리거나 뿔은 머리, 손으로 한 염색, 털, 패치워크, 술(fringe), 늘어뜨린 목걸이 등을 이용하여 인공적이 아닌 자연미를 강조하는 데 있었다. 최근의 거리패션에서 보이는 히피스타일의 특징 역시 길게 늘어뜨리거나 뿔은 머리, 손으로 한 염색, 패치워크로 만든 바지 등에서 볼 수 있다<그림 15>. 히피스타일은 주로 런던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영국 정부의 탄압으로 시골로 이주하여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으므로 그 수가 매우 적다.

<표 1>은 이와 같은 남성스트리트 패션의 유형들을 구성아이템과 스타일 특징면에서 정리 요약해 본 것이다.

V. 결 론

현대 대도시 남성들의 패션기호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패션을 선도하는 도시들의 스트리트 패션

< 표 1 > 남성스트리트 패션의 유형별 구성아이템과 스타일 특징

유형	구성아이템	스타일 특징
캐주얼	바지와 셔츠(혹은 티셔츠)베스트, 스웨터, 가죽점퍼, 트레이닝점퍼, 코트, 패딩점퍼	전체적으로 몸에 잘 맞는 실루엣, 코디네이션을 무척 다양하게 연출 여러가지 색상과 무늬를 사용, 청바지와 옆선 줄무늬 바지 많은 운동화/몸에 밀착되는 백착용, 연령층 다양
정장	바지, 셔츠(혹은 티셔츠), 재킷	비즈니스 정장은 차분한 분위기, 캐주얼 정장은 활동적이고 경쾌한 분위기 전달 캐주얼 정장에는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가 많이 사용됨
록커/펑크	검은 가죽점퍼, 굵은 벨트, 목이 높은 부츠, 특이한 헤어스타일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세우는 독특한 헤어스타일 검은색 가죽점퍼에 문자 또는 그림을 그리고 금속장식을 과다하게 사용 귀와 코에 구멍을 뚫는 piercing을 많이 함 런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됨
에스닉	바지, 스커트 튜닉 드레스	특정지방이나 민족의 고유복장을 그대로 입기도 함 각각 다른 문화권의 의상을 cross-cordination
힙합	길고 매우 통이 넓은 바지, 티셔츠, 점퍼	몸이 너털하여 헐렁해 보이는 실루엣 다른 유형에 비해 어둡거나 가라앉은 색조가 많음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주로 착용 활동성과 기능성 강조(포켓부착)
웨스턴	데님 블루종 스타일 재킷, 데님바지, 가죽부츠, 카우보이 모자, 굵은벨트	여러 아이템과 혼합하여 다양한 웨스턴 스타일 연출 의상 외에 소품 (카우보이모자, 부츠, 벨트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됨
스커트	스커트	착용하는 연령대 다양, 런던과 파리에서 주로 보임
앤드로지너스	짙은 화장, 여성스러운 머리스타일, 신체노출, 장신구 사용	성(性)의 구별이 잘 안됨, 화려한 색상 동성애자들이 주로 착용
뉴로맨틱	과거시대의 의복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부풀린 소매, 가발, 수놓은 재킷 등)	과거시대의 의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스타일이 많다. 런던과 뉴욕에서 주로 발견됨
밀리터리	군복	군복종류에 따라 모자와 부츠를 함께 착용
히피	길게 늘어뜨리거나 땅은 머리, 술(fringe), 패치워크	주로 런던에서 발견됨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스타일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현대 대도시 특히 패션선도 도시에 사는 남성들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는 무척 다양하나 그 중에서 도시생활에 적합한 활동적인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다.

남성패션을 전체적 이미지에 따라 유형화해 본 결과 캐주얼, 정장, 록커/펑크, 에스닉, 힙합, 웨스턴, 스커트, 앤드로지너스, 뉴로맨틱, 밀리터리, 히피의 11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정장은 비즈니스 정장과 캐주얼 정장으로, 그리고 캐주얼은 계절과 용도에 따라 가죽, 캐주얼 점퍼, 티셔츠, 셔츠, 베스트, 코트, 랩 어라운드, 스웨터, 방한복의 9가지 스타일로 구성되는 등 매우 다양하였다. 출현빈도면에서 보면 캐주얼(319)과 정장(95)이 다른 이미지들에 비해 매우 높고, 특히 티셔츠와 바지(80), 캐주얼한 정장(61)차림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다양한 패션이미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론적 배경에서 지적인 바와 같

이 특정 음악애호, 모방보다 진짜를 중시하는 문화적 전도현상, 외국 이민자들의 증가, 민족주의의 부활, 동성애자들의 부상, 클럽문화의 성행, 독특한 디자인의 의복들을 소개하고 공급하는 패션잡지 및 의류소매상들의 증가와 같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2. 스트리트 패션은 과거의 스트리트 스타일과는 달리 집단정체감보다는 개인의 정 체감을 표현하고, 변화하는 시대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웨스턴, 록커, 히피, 펑크, 뉴로맨틱, 스케이터, 글램 등 과거에 성행했던 스트리트 스타일들이 아직도 그 스타일 특징을 유지하면서 남아 있었으나 획일적인 스타일들이 아니고 개인별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되어, 이들이 과거에는 배타적인 집단정체감을 표현하였으나 현재는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자기표현의 의미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에스닉, 밀리터리 스타일들도 다수 나타나 민족주의 부활, 글로벌리즘과 같은 1990년대의 변화

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있었다.

3. 현대 남성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독창성을 표현하는 것을 즐기며 스타일 연출에 있어 남의 모방보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이미지나 특징을 가져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같은 유형 내에서 개별 스타일은 모두 다른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즉, 모든 유형에서 의복아이템들은 물론 모자, 신발 등 패션소품들도 형태, 소재, 색, 디테일면에서 같은 디자인이 거의 없었고, 디자인이 다른 각각의 아이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입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유형군내에서도 개인이 만들어내는 스타일의 메시지는 모두 다른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의 선택에 의한 다양성과 독창성이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을 결정지으며, 이들 패션선도 도시들이 세계적 패션정보의 발신기지로 부각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4. 의복선택에 있어 성(gender)의 제한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다.

남성의 의복이지만 빨강, 노랑, 보라, 초록 등 온갖 다채로운 색상들과, 동물의 표피, 꽃, 그래픽, 체크, 점, 문자, 민속 무늬 등 다양한 무늬들이 크고 작은 스케일로 사용되었으며, 장식을 목적으로 자수, 누빔, 패치워크, 회화, 손으로 하는 염색들이 빈번히 행해졌다. 이와 함께 캐주얼이나 정장차림의 실루엣이 신체의 윤곽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특히 여자와 같이 짙은 화장과 머리모양을 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치마나 몸을 노출하는 앤드로지너스 풍의 스타일들을 입은 차림들은 현대 남성들의 성정체성(masculinity)이 변화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5. 남성 패션에서 멋과 함께 활동성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 가고 있다.

옆에 줄무늬가 있는 트레이닝웨어가 여러 스타일에서 공통적으로 다수 발견되는 것은 처음의 운동복의 개념을 벗어나 일상복으로 정착한 것을 의미하고, 의복 스타일에 관계없이 절대 다수가 다양한 디자인의 운동화를 착용한 점, 물건을 담고 팔의 활동성을 더하기 위해 옷자체에 포켓을 많이 달거나 몸에 밀착되는 기능성 가방을 둘러맨 차림이 많은 점들은 남성들의 패션기호가 동작에 편하고 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이미지군에서 20대가 많긴 하나 30대, 40대, 50대도 골고루 발견되었다. 이제까

지 스트리트 패션이 주로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연령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간문자. (1998). 청소년문화가 스트리트 패션에 미친 영향-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2(1), 35-48.
- 김민자. (1987).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2), 69-89.
- 염혜정. (1999).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연구-198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3(4), 55-66.
- 염혜정. (2000). 일본의 패션잡지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복식*, 50(6), 73-87.
- 정미진·정홍숙·김선화. (2002). 락(Rock)음악의 발전에 따른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과 변천. *복식*, 52(5), 173-186.
- 정현숙·양숙희. (1999). 하위문화 패션출처로서의 영국 street style 연구. *복식*, 49(1), 137-162.
- 한국패션협회. (2000). *2000년 패션수요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보고서*. 한국패션협회.
- Clarke, J. (1977). Style. in S. Hall & T. Jefferson(Ed.), *Resistance through ritual*. 175-191. London: Hutchinson.
- Clarke, J. Hall, S. Jefferson, T. & Roberts, B. (1997). Subcultures, cultures and class. in K. Gelder and S. Thornton(Ed.). *The subcultures leader*. 100-111. London: Routledge.
- Cohen, P. (1997). Subcultural conflict and working-class community. in K. Gelder and S.Thornton(Ed.). *The subcultures leader*. 90-99. London: Routledge.
- Denzin, N. & Lincoln, Y. (1998).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London: Sage.
- Gregory, H. (1998). *A century of pop*. Chicago: Cappella Books.
- Haye: A and Digwall, C. (1996). *Surfers, soldiers, skinheads & skaters*. London: V & A.
- Hebdige, D. (1979).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Methuen
- Hebdige, D. (1977). The meaning of mod, in S. Hall & T. Jefferson, *Resistance through rituals*. 87-98. London: Hutchinson.
- Mort, F. (1996). *Cultures of consumption*. London: Routledge.
- Polhemus, T.(1995). *Streetstyle*. London: Themes & Hudson.
- Polhemus, T.(1996). *Style surfing*. London: Themes & Hudson.
- Power, P. & Peel, L. (1994). *'50s and '60s style*. London: Quintet.
- STREET. 1996-2000, Tokyo: Street.
- TEXTILE VIEW. 1996-2002, London: View Pub.